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. 20.(월)

박상우 장관, “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정책” 강조

-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… 항공참사 반성 · 현장 중심 안전 정책 당부, 철도지하화 ·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 선정 등 주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**1월 20일**(월) **오전** 국토교통부 1·2차관,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, 각 실·국장 및 정책관, 지방국토관리청장,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**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**와 관련하여 “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**주무 부처로서 책임감**을 느껴야 한다”면서, “사고 원인을 **다각도로 철저히 분석**하고, **냉정하고 처절한 반성**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**반복되지 않도록** 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“항공·교통·건설 등 **국민 안전**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**안전 정책**을 **현장 중심**으로 **전환**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○ 특히, “여전히 **교통사고**와 **건설현장 안전사고**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**제대로 따져볼 것**”을 주문했다.

□ 박 장관은 “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”면서, “**철도지하화 선도사업** 선정, **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** 선정 등의 과제들도 **차질 없이 매듭**을 지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**2월 중 법안 국회**가 개최될 것에 대비하여 **재건축 촉진법**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.

□ 마지막으로, '**설 연휴** 동안 **장관**이 **직접 현장을 방문**하여 **안전관리 현황**을 **점검**할 계획'이라면서, "각 간부들도 소관 업무에 대해 **철저히 점검**하고 **관리**할 것"을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	이재평 (044-201-3201)
<총괄>	기획담당관	담당자	서기관	김태훈 (044-201-319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